

A-2 구개판막술시 얻어지는 결합조직의 이용

김영석*, 임성빈, 정진형

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

구개부에서의 외과적 술식은 그 조직학적 특성 때문에 다른 부위와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한다. 구개부 조직은 모두 각화, 부착치은이며 그 부위에서의 thickness는 매우 두꺼운 편이다. 따라서 구개부에서 치주판막술식이 시행될 때, 두꺼운 구개부 조직 때문에 얇은, knife-like gingival margin을 형성하기가 용이하지 않고, 치유가 늦어지게 되며 그 판막 자체의 thickness만큼 치주낭 깊이가 증가하게 된다. 따라서, 대부분의 구개판막술식에서는 판막의 완전한 거상 전에 thinning을 시행하여 얇은 knife-like gingival margin을 형성해 주어야 한다. 이 때 많은 양의 결합조직이 얻어지며, 이 결합조직은 다양한 술식에 이용될 수 있다.

부착치은의 획득, 치근피개술, 치조제 증대술, socket preservation등의 술식은 결합조직이 필요하며, 부가적인 trap door등의 술식으로 이식편을 채취하여야 한다. 그러나, 구개판막술에서 thinning시 얻어지는 결합조직을 이용하면 부가적인 공여부의 형성 없이 이식편을 채취할 수 있으며 기존의 판막술식과 동시에 시행하므로 진료 시간의 증가나 부가적인 추가 약속 없이 시행할 수 있다.

증례 1

45세의 성인 여자로 하악 견치와 소구치 보철물 하방에 1mm의 적은 부착 치은이 존재하여 구개판막술시 얻어지는 결합조직으로 이 부위의 부착치은을 3mm로 증가시켰다.

증례 2

36세의 성인 여자로 상악 견치와 소구치 부위의 지속적인 치은 퇴축을 호소하여 구개판막술시 얻어지는 결합조직을 Langer & Langer method를 이용하여 동부위 견치, 소구치의 3mm 정도 노출된 치근을 피개하였다.

증례 3

상악 전치부의 무치악 부위의 결손으로 인한 보철물 제작의 어려움으로 보철과에서 의뢰된 42세의 성인 여자로 구개판막술시 얻어지는 결합조직을 이용하여 상악 전치부의 무치악 부위에 치

조제 증대술을 시행하였다.

증례 4

51세의 성인 남자로 상악 측절치의 발치시 심한 치조골 흡수가 예상되어, 발치후 육아조직을 완전히 제거하고 DFDB를 filling한후 구개판막술시 얻어지는 결합조직으로 그 부위를 피개하여 socket preservation을 시행하였다.